

## 진종오 금, 사격 '16년 限' 풀다

박태환 자유형 200m '金같은 銀' ... 유도 김재범 은메달

관련기사 3·7·18·19면

2008 베이징올림픽 나흘째인 12일에도 금메달 행진이 이어졌다.

한국 선수단은 대회 나흘째인 이날 '간판 총잡이' 진종오(29·KT)가 대망의 금메달을 명중시키고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과 유도 김재범(23·한국마사회)이 은메달을 추가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겼던 진종오는 베이징 사격관에서 열린 남자 50m 권총 본선에서 563점을 쏘아 공동 2위로 결선에 오른 뒤 합계 660.4점을 기록, 북한의 김정수(합계 660.2점)와 중국의 탄종량(659.5점)을 제치고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이 사격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 이후 16년 만이며 진종오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이 종목 결선에서 빠진 실수로 은메달에 머물렀던 한을 4년 만에 풀었다.

지난 10일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따내 한국 수영을 세계 정상으로 이끈 박태환(19·단국대)은 '금메달 같은' 은메달을 추가했다. 수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선에 출전한 박태환은 1분44초85의 기록으로 터치패드를 찍어 1분42초96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운 마이클 펠프스(23·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김재범은 유도 남자 81kg급 결선에서 올레 비소프(독일)에 유효로 겨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 3관왕에 오른 '수영 황제' 펠프스는 아테네올림픽 때 획득했던 금메달 6개를 합해 개인통산 금



“金 땀어요”

2008베이징올림픽이 계속된 12일 베이징사격관에서 열린 남자 50m 권총 시상식에서 진종오가 금메달과 꽃다발을 보여주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달을 9개로 늘렸다.

그러나 믿었던 레슬링에서는 금메달 사냥에 실패했다. 그레코로만형 55kg급에 출전한 박은철(27·주택공사)은 4강에서 나지르 만키예프(러시아)에 1-2로 역전패했지만 동메달 결정전에서 하미드 수리안 레이한푸르(이란)을 2-0으로 꺾었다.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정지현(25·삼성생명)은 60kg급 8강에서 북빙 누르바키트 텐기즈바예프(카자흐스탄)에 1-2로 졌다.

배드민턴에서는 유력한 우승후보로 꼽혔던 정재성-이용대(이상 삼성전기) 조가 16강에서 덴마크의 덴마크의 파스케-라스무센 조에 0-2(16-21 19-21)로 무너져 메달 레이스에 차질이 빚어졌다. 다만 남자단체의 이현일(김천시청)이 독일의 마르크 츠비블러를 2-0(21-13 21-11)으로 꺾고 8강에 올라 위안을 삼았다.

남자 기게 체조 대표팀은 합계 274.375점을 획득, 5위에 머물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국가별 메달 순위 (12일 21시 00분 현재)

순위	국가	금	은	동	합계
1	중국	11	3	4	18
2	미국	7	6	8	21
3	대한민국	5	6	1	12
4	이탈리아	3	4	2	9
5	호주	3	1	5	9

### 오늘의 빅매치 (13일) (한국시간)

- 지** 양궁 남자 개인전 임동현, 박경모, 이창환 (11시)
- 수** 핸드볼 여자부 한국-스웨덴 (15시)
- 목** 축구 남자부 한국-우루과스 (18시)
- 금** 야구 한국-미국 (19시)
- 토** 농구 여자부 한국-호주 (21시)

### “열정적인 젊은 그대, 도전하세요” 光州日報 제 57기 수습기자 모집

18일까지 접수 - 자세한 내용은 www.kwangju.co.kr '물릭'

광주일보사

## '1천대 기업' 광주·전남 34개 뿐

부산·경남 3분의 1, 광역市·道 중 '꼴찌'  
건설업이 35% 차지 ... 지역 경제 주도

한국 1천대 기업에 들어가는, 소위 '1천대 클럽'에 가입한 광주·전남 기업체가 전체의 3%대인 34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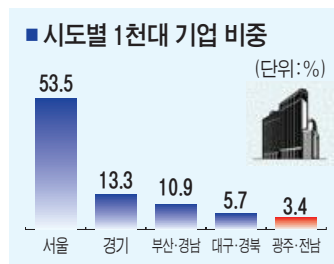
특히 이같은 수치는 서울의 16분의 1, 경기의 4분의 1, 부산·경남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 지역 기업 규모의 상대적 취약성이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1천대 기업중 건설업의 비중이 9%에 불과한 데 비해 광주·전남 건설업 비중은 35%에 달해 건설업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국내 1천대 기업중 광주·전남 소재 기업은 34개에 그쳤으며, 그나마 500위권 아래 업체가 61.8%에 달했다.

이는 2006년에 비해 2배 늘었지만 1천대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로 전국 최하위권에 속한다. 지난해 광주·전남 인구가 325만1천명으로 전체의 6.7%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 규모가 인구 분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셈이다.

반면 서울은 1천대 기업의 비중이 53.5%에 달할 만큼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했다. 이어 ▲경기(13.3%) ▲경남(5.5%) ▲부산(5.



4%) ▲경북(4.0%) 등의 1천대 기업 비중도 광주·전남을 압도했다.

지역별 경제 격차는 1천대 기업의 지역별 평균 매출액에서도 두드러진다. 광주·전남 1천대 기업의 지난해 평균 매출은 6천261억 원으로, 전국 평균(1조3천260억 원)의 47.2% 수준에 머물렀다.

광주·전남은 또 1천대 기업중 매출 1조원대 이상의 업체가 단 5곳에 그칠 만큼 세수 및 고용창출 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져있다.

실제 지난해 광주·전남 1천대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957명으로, 전국 평균(1천468명)의 65.1% 수준에 그쳤다.

지역 경제의 상대적 위축은 업종별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 1천대 기업의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이 47.1%(16개)로 전국 평균(48.5%)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건설업이 차지

### ■ 광주·전남 소재 1천대 기업 현황 (단위: 백만원)

순위	기업명	매출액
1	현대삼호중공업(주)	2,616,869
2	삼성광주전지(주)	2,404,892
3	한국비스프(주)	2,154,041
4	금호타이어(주)	2,029,309
5	금호산업(주)	1,917,318
6	(주)광주은행	976,674
7	금호피앤비화학(주)	730,865
8	엘코코리아(주)	682,230
9	남양건설(주)	655,169
10	백제약품(주)	482,048
11	대주건설(주)	474,541
12	정우개발(주)	439,785
13	금광기업(주)	426,698
14	삼능건설(주)	351,048
15	엘지엠에이(주)	326,463
16	조선내화(주)	325,319
17	(주)해양도시가스	314,994
18	케이(주)	302,096
19	한국화인케미칼(주)	276,750
20	(주)세일종합건설	265,609
21	엘지우폴리케미칼(주)	259,509
22	리센시빌(주)	250,075
23	지에스건설(주)	247,780
24	메이아울초전력(주)	242,326
25	우미건설(주)	232,692
26	리센시빌건설(주)	224,528
27	(주)대창이엔티	224,259
28	(주)새한철강	222,598
29	해원에스티(주)	222,301
30	한국알프스(주)	213,706
31	(주)연호전자	206,553
32	남산석유(주)	200,080
33	에코닉(주)블록코리아(주)	196,604
34	동광건설(주)	194,499

하는 비중은 전체의 35.3%(12개)로 전국 평균(9.2%)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최희종기자 choice@kwangju.co.kr

## 새만금항 개발 ... 광양항 '타격'

정부가 전북 새만금에 항만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광양항 물동량 확보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전남도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민자를 유치해 새만금에 3만급 3~4개 선석을 갖춘 다목적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에 항만이 들어설 경우 광양항은 지리적 위치 상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권의 물동량을 확보하는 데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항이 지난해 처리한 수출·입 화물 140만5천TEU 중 수도권 물동량은 19만6천TEU(14%), 충청권은 9만2천TEU(6.6%), 전북권 24만6천TEU(17.5%)이다. 광양항의 총 물동량 중 수도권 등 3개 지역의 물동량 비율은 38%나 돼 새만금항이 들어설 경우, 광양항은 상대적으로 비싼 물류비로 인해 기존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새만금항에 빼앗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을 맞아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연다는 명분으로 34만1천864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은 경제인과 정치인, 공직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뤄졌다. <관련기사 3면>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복절 특사

34만1,864명

정부는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을 맞아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연다는 명분으로 34만1천864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은 경제인과 정치인, 공직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뤄졌다. <관련기사 3면>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가치에 탐난다! 전월2차 한국이델리움

## 광주 최초,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아파트!

**8월14일**  
Grand Open

생활의 모든 가치를 한곳에서 누리는 미래형 경제아파트!

- 역세권역세권** : 15분 거리, 15분 거리, 15분 거리, 15분 거리, 15분 거리
- 역세권역세권** : 15분 거리, 15분 거리, 15분 거리, 15분 거리, 15분 거리
- 역세권역세권** : 15분 거리, 15분 거리, 15분 거리, 15분 거리, 15분 거리
- 역세권역세권** : 15분 거리, 15분 거리, 15분 거리, 15분 거리, 15분 거리

124㎡부터 총 127세대

분양문의 1577-8733